

■ 2026 새해설계 김산 무안군수

“지속가능 성장·군민 중심 행정 총력 다 하겠다”

“2026년은 무안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 중심 행정을 핵심 축으로 한 미래 전략산업에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김 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리야 한다는 이제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무안의 구조적 전환과 중·장기 성장을 통한 ‘대전환무안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이제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이후 이전 결사 반대여론에서 반전되는 분위기를 맞고 있다”며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속 협의를 군민과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이를 지역 도약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무안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신재생에너지 등 신 성장동력을 제시했는데, 핵심 성장 축은 ‘반도체클러스

미래 100년 핵심축 ‘반도체클러스터’…관련 대기업 유치
RE100 기반 첨단 국가산단·K-푸드 융복합산단 등 조성

터’ 대기업 유치를 꼽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체질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무안 지원 패키지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무안 미래전략 산업의 또 다른 축은 RE100 기반 첨단 국가산단지 조성이 다. 사업비 2300억원을 투입해 현경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28만평 규모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는 전남도의회 승인을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등 신 분야를

모델을 개발,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도시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실제 10억8000만원을 들여 200㎾ 용량의 마을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대폭 확장,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김 군수는 이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 무안형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해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AI 기반 첨단 농산업 거점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군수는 “스마트농업 실증센터, 농



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층이 유입되는 미래형 농촌 모델을 구축, 인구 20만 도농복합 자립도시 건설을 통해 주거산업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다.

김 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지역 상권과 민생 회복, 도시안전, 산업정책 등도 아우르고 있다.

그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장의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

현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단편적 개발이 아닌 지역 고유의 경제 성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구축, 문화와 관광·산업이 서로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함께 끌어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농어업분야에서는 생산 구조 개선과 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생산 구조 개선과 유통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반을 다지고 사람 중심의 포용 복지와 교육 정책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김 군수는 “첨단 국가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인근의 목포신항, KTX 개통 등 무안은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도시다”며 “군민을 모든 변화의 중심에 두고 투자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도시구조를 만드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군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 출신 기자 leek2123@

진도,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6억9900만원 달성

모금액 40%·기부건수 64% 증가…소액기부 다수
전국 기부자들 따뜻한 응원…지역 발전 동력 기대

지난해 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6억99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는 2024년에 모금한 4억9700만원과 비교해 40% 이상 증가한 실적이고, 기부건수는 총 5671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4%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이번 성과는 전국 각지에서 진도군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 특색을 살린 담례품 제공, 명절·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운영,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와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확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만 40세 이하 기부자 중 10만원 이하 소액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48% 이상 증가해 젊은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금액

증가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전복, 김, 흉주 등 대표 특산품을 활용한 담례품도 인기를 끌었는데, 담례품 입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여 재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진도군은 고향사랑기금 활용사업으로 관내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80만원을 지원해 기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 시설원예 상생투자사업 추진

영암군은 시설원예, 과수 분야 안정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2026년 시설원예·과수 분야 상생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참여 농가·법인을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총사업비 37억8000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 영암군은 원예용 시설 장비, 자유무역협정(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19개 원예특작 분야로

나눠 지원에 나선다.

사업 참여 희망 농가·법인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시행지침을 참고해 신청기간 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신청된 사업의 사업성 검토 후 3월 중 심의를 거쳐 참여 농가·단체를 최종 결정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현월은 생명 나눔 실천입니다” 신안군은 22일 신안군청 앞에서 월액 수급 문제 해소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단체 현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신안지구협의회 회원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참여해 출근길 현월 참여 총보 캠페인을 벌이며 현월의 중요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해남,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7세 이상 250명

해남군교육재단은 상반기 원어민 화상 영어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원어민 화상 영어 지원사업은 군민 누구나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교육부

수 있다.

반기별 교육 인원은 7~19세 청소년 180명과 성인 70명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주 2회, 각 30분씩 15주 동안 화상 영어 수업이 가능한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 특히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예산확보를 통해 참가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은 1년간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9월~12월)로 나눠 진행되며, 각 250명씩 총 500명의 해남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h8239@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